



송파구의회
Songpa District Council

미래도시 선진송파 함께하는 열린 의회

심사보고서

의안명	서울특별시 송파구-일본 도쿄도 분쿄구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심사일자	2024. 6. 13. (목)



위원장 김 순 애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서울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242 (우편번호 05584)

서울특별시 송파구-일본 도쿄도 분쿄구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제196호
------	-------

2024년 6월 13일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 5. 31. 송파구청장
- 나. 회부일자 : 2024. 5. 31.
- 다. 상정일자 : 2024. 6. 13. 제312회 정례회 행정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 설명의 요지 (김성수 총무과장)

가.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제7조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와 일본 도쿄도 분쿄구 간의 자매결연 체결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 동의를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대상도시: 일본 도쿄도 분쿄구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제6조 (자매결연 체결 등의 의회 동의)
 -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제7조 (자매결연 체결)

○ 사 유

- 하계올림픽 개최국이면서 K-POP 공연 등이 가능한 대규모 콘서트장을 보유하는 등 도시 간 유사성이 있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일본 도쿄도 분쿄구 간 문화·스포츠·교육·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통하여 상호 공동 발전과 지역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함.

○ 결연내용

- 문화·스포츠·교육·경제 등 각 분야에서 실질적 교류
- 민간교류 지속적 확대 및 경제 활성화 기여
- 화합과 친목 도모를 위한 민간단체 교류활동 적극 지원
- 양 도시 간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공동 관심사항 지속 발굴

다. 추진현황

- 2009. 2. 송파구→일본사무소에 자매교류 희망신청서 제출
- 2009. 8.20. 분쿄구→송파구 교류 환영 의사 전달
- 2023. 8.30. 송파구→분쿄구 교류 재개 의향서 전달
- 2023.10.19.~20. 분쿄구 대표단 송파구 방문(분쿄구청장 등 10명)
- 2024. 3.14.~18. 일본 도쿄도 분쿄구 초청 세계 도시문화 행사 송파구 홍보부스 운영 및 실무진 우호협력 MOU 협의
- 2024. 4.25.~28. 송파구 대표단 분쿄구 방문 및 우호협력 MOU 체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진미숙 전문위원)

-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최근 전 세계적으로 한국 드라마, K-POP 공연 등 한국 문화 콘텐츠의 인기와 함께 한류의 확산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음. 특히 자매결연을 체결하려는 도쿄도

분교구에서는 서울올림픽 개최의 중심지인 송파구와 마찬가지로 도쿄올림픽 개최라는 지역적 유사성이 있는 도시로, 2009년 송파구와는 처음으로 교류를 시작한 것으로 보여지며, 자매결연 체결을 통해 문화·스포츠·교육·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함으로써 상호 공동 발전과 지역 활성화를 추진하려는 것으로 사료됨. 송파구는 현재 6개의 도시와 자매교류를 하고 있으며, 4개의 도시와 우호교류를 하고 있음. 참고로 현재까지 파기한 곳은 없음. 지방자치의 시작으로 지방분권화가 확장될수록 도시 간 경계는 무너지고 상호 연계성이 확대되면서 지방정부 간 국제교류 협력은 국가 간 교류를 넘어설 만큼 그 중요성이 높아졌음. 국외도시와의 상호 교류는 이제 지방행정의 세계화,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목표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펼치는 공공외교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사료됨.

- 본 동의안을 종합 검토한 바, 자매결연을 통해 자치단체 간의 우호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생산적인 교류 협력을 도모함으로써 송파구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다만, 이러한 자매결연이 형식적이고 일회성의 이벤트가 되지 않도록 도시 간 상호교류 계획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유지·확대해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음.

4. 질의 및 답변

【 질의 : 정주리 위원 】

- 답변 : 김성수 총무과장

- 국내외 정세로 일본과의 자매결연 지연되었다고 했는데, 당시 국내외 정세가 어떠했는지?

- 강제징용 및 위안부 피해자 배상 등 급냉각된 한일 관계로 자매 결연이 지연되었음.

【 질의 : 김순애 위원장, 김호재·박성희 위원 】

- 답변: 김성수 총무과장

- 자매결연 체결은 우호·신뢰 관계를 충분히 구축한 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관련 조례 제6조에서 “의회의 동의를 받는다.”는 의미는 자매결연 체결을 위해 일부 자료만을 가지고 형식적으로 자매결연을 동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의회에서도 자매결연지에 대한 충분한 교류, 사전답사 등 정보를 바탕으로 공감대 형성을 하여 동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서의 의견은?
- 자매결연 체결을 위한 교류 과정 중 의회와 함께 진행하지 못한 부분은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음. 그동안 일본 분교구와의 자매결연 체결을 위해 노력하였지만, 3번의 좌절이 있었으며, 이번 교류는 일본 분교구의 초대·제안으로 방문하게 되었음. 현재 분교구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적극적으로 자매결연을 체결하기를 원하고 있어 빠르게 추진된 부분이 있음.

【 질의 : 김순애 위원장, 이강무 위원 】

- 답변 : 김성수 총무과장

- 자매결연 이후 교류가 없다면 자매결연을 체결하는 의미가 없음. 따라서 상호간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봄. 이에 대한 부서의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 현재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 시”의 경우 학생·교사교류 등

교육부분과 축구단, 마라톤 참여 등 스포츠 분야 교류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음. 또한 자매결연 도시와는 지리적 접근성에 따라 교류의 차이가 있으며, 송파구와 유사성을 바탕으로 교류를 해 나갈 예정으로 금번 도쿄도 자매결연 도시와는 영어스피치 경연, 교육 페스타 등 교육 부분과 청소년 축구단 교류를 진행할 예정임.

【 질의 : 김호재 위원 】

- 답변 : 김성수 총무과장

- 자매결연을 추진함으로써 우리구민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을 주는 부분이 있는지? 그동안 체결한 자매결연지 중 우리 구민에게 주는 혜택이나 이점이 있는지?
- 현재 체결한 자매결연지에 대한 별도의 혜택은 없음. 하지만 이번 자매결연 추진을 통해 구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공식화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구민에게 혜택을 주는 부분 또한 상대 도시와 함께 논의하여 찾아가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5. 심사결과 : 원안가결